복음의 증인이 되기까지

'복음 선포자의 교육서'라고 불리는 루카 복음서는 우리가 복음 선포자가 되기에 앞서 스스로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복음사가 루카와 동행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탈과 자유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는 예수님 (루카 4, 16-30)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먼저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한 대목을 읽으신 후,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흡족해하는 호의적인 청중들의 마음을 당신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자신들의 기대에 말아 넣으려고 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채워 주고, 사람들의 기대와 필요와 사정에 맞추어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위협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자유로 그것을 뛰어넘으십니다. 실패나 악평, 사람들의 거부와 냉대를 받는 두려움에서의 완전한 자유와 절대적 정신의 자유를 지니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신비를 들여다보시고 온 세상의 신비를 바라보시는 심원한 자유를 간직하신 복음 선포자로 등장하십니다. 이러한 이탈이 있었기에 하느님의 자유로우심을 설교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1]

2. 복음 선포자의 양성자이신 예수님 (루카 5장-18장)

루카 복음의 서곡인 4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5-1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숙한 인간, 타인들의 필요와 고통을 의식할 줄 아는 인간이 되도록 당신의 행적과 설교를 통해 몸소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따로 당신의 제자들을 복음 선포자로 교육을 시키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큰 세 가지의 테마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1) 마음의 이탈과 자유를 얻는 교육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중략)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12, 33-35)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지녀야 할 본분에서 자신을 멀리 떼어놓을 수 있는 –인정받음, 자기 성취, 개인적 염려, 경쟁, 혈연, 재물, 권력과 지위 등등-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도록 가르치심으로써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바라십니다.

2) 아버지께 자기를 맡기는 교육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상, 자기 목숨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알아야 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 또 생명까지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12, 22-32) 우리 신뢰의 대상은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분께 신뢰를 두도록 초대하십니다.

3)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교육, 수동성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9, 22)는 수난 예고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교육시키시며,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약하심이라는 신비를 깨닫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능동성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수동성에서도 드러난다는 것과, 그것도 겸손함과 단순함과 양선함으로 당하는 그 피동성에서 당당한 품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 하십니다.

예수회 신학자인 떼이야르 드 샤르댕은 그의 저서 『신의 영역』에서 인간이 성화(divinization, 구원)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 선행, 활동(능동성)을 통한 성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여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한 수동성의 성화입니다. 그런데 능동적인 태도만으로는 우리 신앙을 완성하는 데 부족하다고 본 떼이야르는 ‘능동성에 앞서는 수동성의 성화’를 주장하면서 인간 구원의 결정적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이러한 수동성은 또 다시 우리를 지지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증대의 수동성’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감퇴의 수동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떼이야르는 증대의 수동성 보다도 감퇴의 수동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인간의 성화는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떼이야르는 수동적 감퇴의 대표적인 세 가지 양상을 ‘좌절’, ‘실패’, ‘죽음’으로 보면서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오메가 포인트*(우주진화의 정점)*에로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는 제자 교육의 필수적인 장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9, 45)

3. 잠자코 사랑받는 체험 (루카 22장)

우리는 많은 교육과 양성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왜 매번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면서도 그토록 많은 위기와 낙담과 의욕상실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며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22, 33)라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자 닭이 울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시선에 조용히 머물러 봅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라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돕는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 다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난 전에는 예수님을 구원해야 하는 충실한 사명감으로 불탔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자신의 나약함을 깊이 체험하면서 슬피 웁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이 시선은 베드로를 잠자코 사랑받는 체험으로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야심만만하게 나서서 무엇인가 했던 그는 이제 하느님 앞에서 잠자코 사랑받는 것, 잠자코 구원을 받는 것, 잠자코 용서를 받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죽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러 가심을, 주님을 위해 치워드리고 싶었던 그 십자가가 사랑과 구원의 표지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2]

4. 증인이 됨 **(**사도**1, 1-14)**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중략)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1, 8)
복음 선포자로서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업이 아버지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명과 함께 주신 능력, 행동하고 말하고 수행하는 능력 역시 하느님에게서 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사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복음 선포 사명은 부담이 아닌 열성과 기쁨과 창조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묵상 자료

1.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계시는지요?
2. 루카 복음 4, 16-30; 12, 22-40; 22, 54-62; 24, 13-35
3. 사도행전 1,1-14

[1, 2] 루가복음, C.M.마르티니 지음, 성바오로 출판사 참고
자료제공: 평생교육위원회